日本과 臺灣의 養豚經濟 比較分析

金 炯 華
首席硏究員, 畜産開發硏究室, Ph.D.(農業經濟學)

Ⅰ. 머리말
Ⅱ. 돼지의 生産
Ⅲ. 豚肉의 流通 및 消費
Ⅳ. 養豚政策
Ⅴ. 맺는 말

Ⅰ. 머리말

우리의 養豚業은 종래의 畜産과는 달리, 최근 커다란 變化를 겪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종래의 畜産이라고 하는 것은 農家에서 벼나 보리를 재배하여 생기는 副産物을 가지고 家畜을 기르고, 이것으로 얻어지는 厩肥를 가지고 다시 農事를 짓는 形態로, 소위 農家의 副業的인 形態의 畜産을 말한다.

우리의 養豚業은 오랜 동안 이러한 農家의 副業的인 形態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規模는 매우 작아 돼지를 한두 마리 農家에서 사육하는 정도이고 養豚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었다. 그러나 畜産物의 需要가 늘어나고 돼지의 飼育規模가 종래의 畜産形態와는 달리, 확대되기 시작하자 養豚에 대한 일반의 認識도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消費者는 돼지고기가 安定的으로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다. 經濟가 발전되고 國民所得이 증대됨에 따라 자연히 肉類의 消費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돼지고기의 消費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두 마리씩 키우는 農家의 副業的인 養豚으로는 돼지고기를 安定的으로 공급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 飼育規模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養豚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러한 變化는 비단 우리만이 겪는 現象은 아니다. 日本이나 臺灣에서도 이미 겪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變化는 經濟發展과 더불어 일어나는 하나의 過程이며, 經濟發展에 따르는 불가피한 現象으로 보인다. 따라서 社會的, 經濟的 여건이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經濟發展의 段階가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 日本과 臺灣의 養豚狀況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 養豚의 問題解決에 하나의 示唆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本硏究의 目的이다.

日本은 經濟가 일찌기 발전되어 이미 先進國의 水準에 놓여 있으며, 臺灣은 아직도 中進國에 속하고 있지만 우리보다는 다소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養豚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 兩國의 經濟的, 社會的 背景은 우리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本分析에서는 日本과 臺灣의 養豚經濟를 生產, 流通 및 消費, 政策의 세 部分으로 나누어 그 共通點과 差異點을 밝히고 그 要因을 經濟發展의 段階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Ⅱ. 돼지의 生產

최근의 돼지飼育 動向을 보면 〈表 1〉에서와 같이 日本이나 臺灣의 돼지 飼育頭數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돼지의 사육두수가 日本에서는 1965년에 3,976千頭이었던 것이 1981년에는 10,065千頭로 지난 16년 사이에 2.5배나 증가되었다. 그리고 臺灣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에 2,936千頭에서 4,941千頭로 1.7배로 증가되었다.

또한 돼지의 全體 飼育頭數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戶當飼育頭數도 증가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1965년에 호당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5.7頭였던 것이 1981년에는 79.4頭로 무려 13.9배나 증가되었다. 그리고 臺灣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에 호당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4.4頭에서 30.5頭로 6.9倍로 증가하였다.

表 1 돼지 飼育 動向

(1) 日 本

	飼育頭數	飼育戶數	戶當飼育頭數
	千頭	千戶	頭
1965	3,976	702	5.7
1970	6,335	445	14.3
1975	7,684	223.4	34.4
1980	9,998	141.3	70.8
1981	10,065	126.7	79.4

資料 : 日本 農林水產省, 「畜產統計」.

(2) 臺 灣

	飼育頭數	飼育戶數	戶當飼育頭數
	千頭	千戶	頭
1965	2,936	670	4.4
1970	2,901	583	5.0
1975	3,315	345	9.6
1979	5,418	227	23.9
1981	4,941	162	30.5

資料 : 臺灣省 農林廳, 「臺灣農業年報」.

이와 같이 돼지사육은 지난 16년 동안에 全體 飼育頭數나 양돈농가의 戶當 平均飼育 頭數나 모두 증가하고 있다. 돼지 사육두수의 증가는, 經濟成長으로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肉類의 消費도 증가되는 일반적인, 食生活의 변화에서 볼 수 있는 豚肉需要의 증가에 의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런데 養豚農家의 호당평균 돼지 사육두수의 증가가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증가보다 훨씬 크게 증가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돼지의 飼育頭數는 증가하고 飼育戶數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돼지生產部門에 있어서 個別經營의 돼지사육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1965년 당시만 하더라도 養豚農家의 돼지평균 사육두수가 兩國이 모두 5頭 정도의 副業的인 小規模 양돈이었으나 1981년에는 그 경영규모도 확대되어 日本은 79.4頭, 臺灣은 30.5頭로 증가되었다. 養豚經營은 양국이 모두 농가의 부업적인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經營規模가 종래에는 소규모였다. 그러나 최근 養豚經營이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 副業에서 專業形態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양돈에 있어서도 勞動費用이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양돈 농가에 있어서도 勞動生產性을 높여야 하였으며 그 결과 돼지의 사육 두수가 증가되었다고 하겠다.

사실, 農業經營에 있어서 勞動費用은 固定費用으로 간주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農業勞動은 대부분이 家族勞動이며, 家族勞動은 경영규모와의 관계없이 이미 일정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족노동에 의한 勞動의 生產性을 높이려면 그 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을

表 2 養豚의 規模別 分布

(1) 日 本

規模 \ 年度	飼育戶數 1974	飼育戶數 1981	飼育頭數 1974	飼育頭數 1981
50頭 미만	82.9%	59.0%	22.9%	8.9%
50～ 100	7.3	14.1	12.7	8.6
101～ 300	7.5	17.5	29.4	25.5
301～ 500	1.5	5.2	13.4	16.3
501～1,000	0.6	3.0	10.1	17.2
1,001 이상	0.2	1.2	11.6	23.4

資料：日本 農林水產省，「畜產統計」.

(2) 臺 灣

規模 \ 年度	飼育戶數 1974	飼育戶數 1981	飼育頭數 1974	飼育頭數 1981
50頭 미만	98.57%	90.23%	63.06%	19.99%
50～ 100	0.95	4.18	8.08	9.80
101～ 300	0.37	4.08	7.54	22.42
301～ 500	0.05	0.80	2.49	10.12
501～1,000	0.03	0.51	2.48	11.57
1,001 이상	0.03	0.20	16.35	26.10

資料：臺灣省 農林廳 內部資料.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表 2〉의 양돈농가의 규모별 分布狀況의 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日本의 경우를 보면 1974년에 50頭 미만의 小規模 養豚農家가 전체 양돈농가의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사육두수의 비율은 전체 사육두수의 22.9%밖에 안되었다. 그러나 1,001頭 이상의 大規模養豚場은 당시만 하여도 미미하여 양돈농가의 비율은 0.2%, 사육두수의 비율은 11.6%에 불과 했다. 그러던 것이 1981년에는 50頭 미만의 小規模 養豚農家의 戶數比率은 59.0%, 飼育頭數의 비율은 8.9%에 불과하여 그 사육규모는 크게 줄었다. 반대로 1,001頭 이상의 대규모 양돈 농가는 그 호수의 비율이 1.2%, 사육두수의 비율이 23.4%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臺灣의 경우도 日本의 경우와 비슷하여, 1974년에는 50頭 미만의 양돈농가가 전체의 98.57% 그리고 그 두수는 전체의 63.06%이었으며, 1,001頭 이상 양돈농가는 0.03%, 그리고 그 두수는 16.35%이다. 그런데 1981년에는 50頭 미만의 농가는 90.23%, 그 두수는 19,99%로 줄어들었고, 1,001頭 이상 농가는 0.20% 그 두수는 26,10%로 늘어났다. 1,001頭 이상의 대규모 양돈장의 돼지 사육두수의 비율은, 臺灣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에 日本의 경우와 같이 크게 증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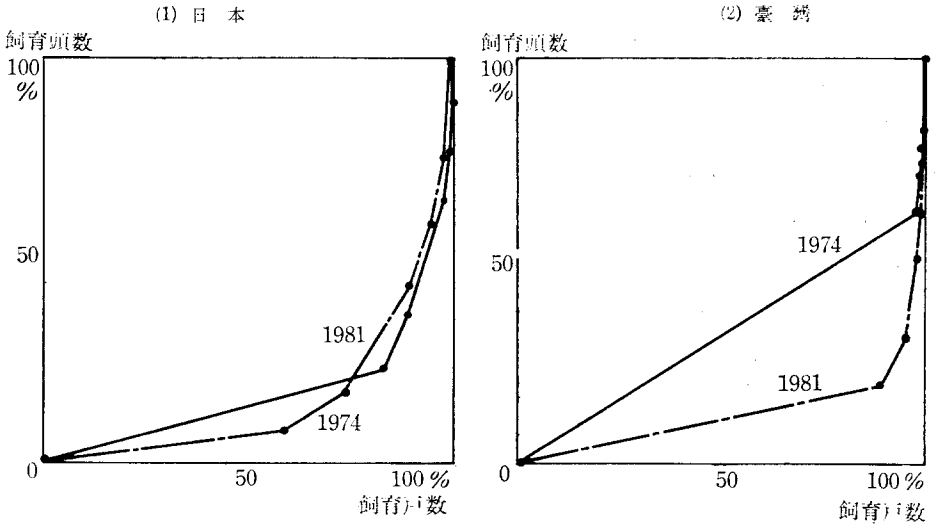
이 기간 동안의 日本과 臺灣 兩國의 養豚飼育規模의 분포 변화를 로렌즈曲線에 의해서 그 특성을 비교해 보면 〈그림.1〉과 같다.

日本의 경우를 보면 소규모 양돈농가의 돼지 사육두수의 비율이 줄었지만 이 규모에 속하는 농가의 비율도 줄어서 그 分布변화는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양돈농가의 사육규모가 전체적으로 확대되어 소규모 양돈농가는 점점 그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규모가 확대된 것이지 特殊階層의 규모만 확대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臺灣의 경우에는 소규모 양돈농가가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양돈농가가 그 규모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그 분포의 변화는 1981년에 와서 1974년보다 오히려 더욱 不均等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차이는 兩國의 經濟發展의 차이에서 그 原因을 찾아볼 수 있다. 日本의 經濟는 그 당시에 이미 勞動不足 상태의 경제이기 때문에, 養豚의 規模를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勞動生產性이 낮은 小規模 양돈농가는 그 규모를 확대하거나 養豚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養豚部門의 勞動力이 非養豚部門으로 전출하게 되었다.

勞動不足 상태에서는 產業間 勞動의 이동이 용이하므로 勞動生產性이 낮은 소규모 양돈은 쉽게 감소된다. 그런데 臺灣에서는 아직도 勞動

그림 1 돼지 飼育規模의 分布變化



過剩 상태의 經濟이기 때문에 産業間의 勞動移動이 어렵다. 소규모 양돈농가의 勞動生産性이 낮다고 하더라도 養豚을 포기하였을 경우 이들 農家는 勞動力을 전출할 다른 대상이 없으므로 小規模養豚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日本에서는 農家의 自家勞動에 대한 機會費用이 他勞動과 같은 상태이지만, 臺灣에서는 自家勞動에 대한 機會費用이 낮기 때문에 소규모 양돈농가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兩國의 養豚政策의 差異에서도 볼 수 있다. 日本은 小規模養豚에 대한 특별한 對策이 없는 것에 비해서, 臺灣에서는 小規模 養豚에 대한 保護措置를 취하고 있다. 즉 臺灣에서는 價格이 폭락하여 소규모 양돈이 지속되기 어려울 때는 政府에서 小規模 양돈장의 돼지를 우선적으로 收買해 주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양돈장의 돼지는 國內市場에 一定量만 출하할 수 있도록 法的으로 制限을 하고 있다.[1]

臺灣에서는 養豚이 國內消費만을 目的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豚肉을 外國으로 輸出도 한다. 그러므로 돼지사육의 규모를 크게 하여 國際市場에서 競爭力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臺灣에서 1,001頭 이상의 대규모 양돈농가의 사육두수 비율이 큰 것은 돼지의 輸出市場 확대와도 관계가 깊다. 돼지 總生産量의 약 10% 정도를 현재 수출하고 있으며, 그 주요 대상국은 日本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하겠다.

Ⅲ. 豚肉의 流通 및 消費

1. 流 通

豚肉의 流通은 생산된 돼지를 도살하여 소비하는데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은 生豚流通 단계와 豚肉流通 단계로 나누어지고 있다. 보통 産地市場에서는 生豚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消費地市場은 豚肉으로 유통된다.

日本에 있어서는 産地市場과 消費地市場이 뚜

[1] 「民營大規模 養豚場 管理辨法」이라는 法을 제정하여 肉豚 1,000頭 이상 또는 種豚 200頭 이상 사육하는 大規模養豚場은 政府의 許可를 받도록 되어 있다.

렷이 구별되어 生豚流通은 產地市場에서, 그리고 豚肉流通은 消費地市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產地市場에서 거래된 돼지를 屠畜場에서 도살한 다음 그 枝肉으로 都賣市場에서 競賣에 의해 小賣商에게 판매되는 것이 日本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豚肉流通方法이다.

그러나 臺灣에서는 產地市場과 消費地市場이 완전히 분화되지 않고, 이들이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家畜市場에서 生豚이 生產者 또는 그 販賣代行者로부터 小賣商에게 직접 경매되고 있어 가축시장이 都賣市場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小賣商이 돼지를 屠殺場에 의뢰하여 돼지를 도살하여 豚肉으로 전환시켜 消費者에게 소매한다.

日本의 都賣市場은 枝肉으로 경매되고 있는데 비해, 臺灣에서는 生豚으로 경매되고[2] 있는 것이 하나의 차이점이다. 그외의 都賣市場을 거치지 않고 生產者로부터 직접 小賣商에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日本과 臺灣 兩國의 生豚 및 豚肉의 流通經路를 圖表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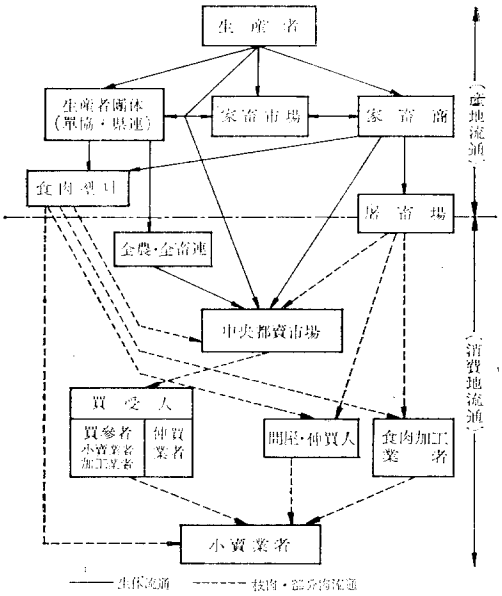
日本에서나 臺灣에서나 다같이 돼지生產農家는 生產者團體를 통하여 돼지를 출하하는 것이 典型的인 형태이며, 일부는 家畜商을 통하여 出荷하기도 한다. 그러나 大規模 生產者는 그들이 생산한 돼지를 직접 출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臺灣에서는 農會(臺灣의 農業協同組合)에서 돼지를 共同出荷하며, 그 出荷量을 조절하고 있다. 즉 農會는 農家로부터 다음 달의 돼지 出荷希望을 모아서, 出荷豫定量을 조사한다. 農會는 이 出荷豫定量을 근거로 하여 臺北市, 基隆市 등 주요 家畜市場과 다음 달의 共同出荷量을 교섭한다. 이 市場들은 매일 一定量의 돼지를 供給屠殺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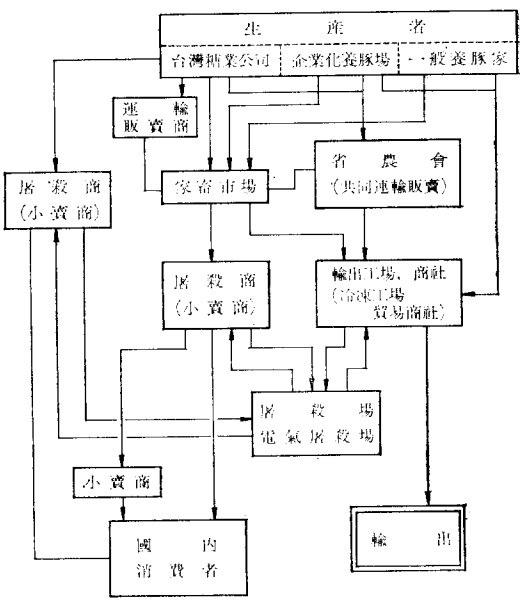
[2] 단 臺北市와 基隆市의 家畜市場에서는 屠體로 競賣되고 있다.

그림 2 豚肉 流通經路

(1) 日 本



(2) 臺 灣



한달 전에 미리 農會에 必要量을 할당한다. 農會에서는 할당된 量만큼 出荷의 義務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는 罰課金을 지불해야 된다. 반대로 割當量을 출하했는 데도 판매되지 아니했을 때는 補償金을 받는다. 이 割當은 1개월에 1회 이루어지지만 出荷 5일 전에 家畜市場이 그 量을 통보함으로써 出荷量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都賣市場에서의 競賣가 臺灣에서는 生豚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日本에서의 枝肉競賣와 비교할 때 이는 商行爲의 慣習에서 오는 차이인 것 같다. 都賣市場의 기능이 效率的인 集分荷와 적정한 價格設定에 있다고 한다면, 生豚보다는 枝肉으로 경매하는 것이 都賣市場의 기능을 발휘하기 쉬울 것 같기 때문이다. 消費者가 요구하는 小賣의 精肉에 있어서 그 質과 量을 生體인 상태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臺灣에서도 豚肉 小賣는 等級化되어 판매되고 있으므로 都賣도 정확한 평가가 되는 去來를 바랄 것이다. 또한 枝肉으로 거래하게 되면 生體보다 같은 面積에서 많은 量을 취급할 수 있다.

돼지를 生體로 경매한다는 것은 그만큼 生體自體의 標準化가 성공되어 品質이 標準化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等級의 枝肉에 있어서도 그 品質의 隔差가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실제의 去來는 現物을 보지 않고는 납득하기 어렵고 따라서 生體의 去來는 정확한 評價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臺灣에서 돼지가 生體로 경매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거래되어 온 상행위의 慣習에 의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우기 臺灣에서도 臺北市와 基隆市 등 消費地의 大家畜市場에서는 屠體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추측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2. 豚肉의 消費

日本과 臺灣의 돼지고기 소비는 최근 크게 늘어났다. 〈表 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日本에서는 돼지고기의 1인당 年間 消費量이 1960년에는 1.1kg밖에 안되던 것이 1978년에는 8.7kg으로 이 기간에 8배나 늘어났다. 그리고 臺灣에서는 돼지고기의 1인당 年間 消費量이 1960년에 이미 14.5kg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 1978년에는 23.4kg이나 되었다.

日本과 臺灣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크게 다르지만, 兩國이 모두 지난 기간 동안 그 소비가 증가되었던 것은 공통되는 점이다. 돼지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품으로서 國民所得의 증가와 더불어 그 소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需要側面의 요인에 불과하며 供給側面의 요인으로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兩國이 모두 돼지生産을 輸入飼料에 의존하여 大量化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兩國이 모두 돼지고기의 消費가 크게 증가하여 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증가가 둔화되어 1인당 소비가 거의 증가되지 않고 있다. 臺灣에서는 돼지고기의 소비가 營養的인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과다한 상태에 있으며, 日本도

表 3 1人當 豚肉 消費量 推移(精肉)

	日 本	臺 灣
1960年	1.1kg	14.5kg
1965	3.0	16.8
1970	5.3	18.9
1975	7.3	20.2
1978	8.7	23.4

資料 : 日本 ; 「食品需給表」, 1979.
臺灣 ; *Food Blance Sheet*, 1978.

表 4 1人當 肉類 消費 現況(枝肉)[1]
1978~80년 平均, ( )은 %

	日 本	臺 灣
쇠 고 기	4.8kg(15.95)	1.07kg(2.51)
돼 지 고 기	13.4 (44.52)	36.03 (84.58)
家 禽 肉[2]	10.0 (33.22)	5.3 (12.44)
양 고 기	1.9 (6.31)	0.2 (0.47)
합 계	30.1 (100)	42.60 (100)

1) 1978~80년 平均
2) 오리고기 포함
資料 : USDA, *Foreign Agriculture Circular*, 1981.7.

돼지고기만의 소비는 많은 것이 아니지만 肉類 전체의 소비는 營養的인 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70년대까지의 돼지고기의 消費增加는 所得수준의 향상에 따르는 절대적인 증가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른 肉類와 代替되는 정도의 消費增加밖에 없을 것이므로 그 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兩國間에 돼지고기의 1인당 消費量의 차이가 크게 있는 것은 돼지고기에 대한 選好度가 兩國 國民間에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表 4〉에서와 같이 돼지고기가 肉類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이 日本은 44.5%인데 비해 臺灣은 84.5%이다. 臺灣에서는 전통적으로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으며 肉類라고 하면 돼지고기를 상징할 만큼 돼지고기는 臺灣人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 나라에서도 쇠고기나 닭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 量은 얼마되지 않는다. 사실 臺灣의 食糧政策 중 쌀 다음으로 중요한 比重을 차지하는 것이 돼지고기이다.

日本에서는 돼지고기의 選好度가 臺灣만큼 높지 않다. 肉類消費 중 돼지고기의 비중에서도 알 수 있지만, 日本人은 돼지고기보다 쇠고기를 더 좋아한다. 쇠고기는 돼지고기보다 비싸기 때문에 소비가 적은 것이지 選好度가 낮아서가 아니다. 日本은 전통적으로 肉類보다는 魚貝類를 즐겨 먹어 왔다. 그러므로 動物性 蛋白質을 공급하는 식품으로서 돼지고기의 비중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못된다.

肉類의 소비는 국민의 生活水準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 흔히들 肉類는 高級食品이므로 소득이 증가되면 肉類의 소비도 늘어난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肉類의 소비는 소득의 增加函數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조건이 같을 때"라는 前提가 暗默裡에 주어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돼지고기도 肉類의 하나로 高級食品에 속하므로 흔히 소득증가와 결부시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과 臺灣 兩國間의 돼지고기 消費를 비교할 때는 所得의 차이로써는 說明力이 전혀 없다. 그 차이는 兩國國民間의 돼지고기에 대한 選好度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Ⅳ. 養豚政策

1. 價格政策

최근의 豚肉價格을 보면 〈表 5〉과 같다. 產地에서는 生豚으로 거래되므로 生體價格이고, 消費地에서의 小賣價格은 精肉價格이다. 1978~1980년의 3개년간의 價格을 보면, 日本과 臺灣 어느 나라든지 1979년의 價格이 낮다. 이 해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돼지 生產이 세계적으로 과잉되어 그 價格이 특히 낮았던 것이 특징이다.

生豚價格은 日本이 臺灣에 비해 약 50% 정도 높고 豚肉의 소매가격은 약 3배 정도이다. 돼지를 생산하는 生產者로부터 消費者에게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流通이라 하고 이 과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流通費用이라고 하면, 日本과 臺灣

表 5 豚肉의 價格

(1) 農家受取價格

US$/生豚 100kg

	日本	臺灣
1978	218.96	132.22
1979	155.40	110.58
1980	203.68	132.44

資料：日本；農林水産省，「農村物價賃金統計」，1982.
臺灣；臺灣省政府 農林廳 內部資料.

(2) 小賣價格

US$/精肉 kg

	日本		臺灣	
	上品	中品	上品	中品
1978	10.10	8.05	2.74	2.28
1979	7.88	6.25	2.51	2.06
1980	9.23	7.12	2.85	2.37

資料：日本；農林水産省，「食肉流通統計」，1981.
臺灣；臺灣省 農林廳，「臺灣 農産物價統計月報」.

註：換率 1$當

	1978	1979	1980
日本(円)	195.1	239.9	203.6
臺灣(元)	36.00	36.10	3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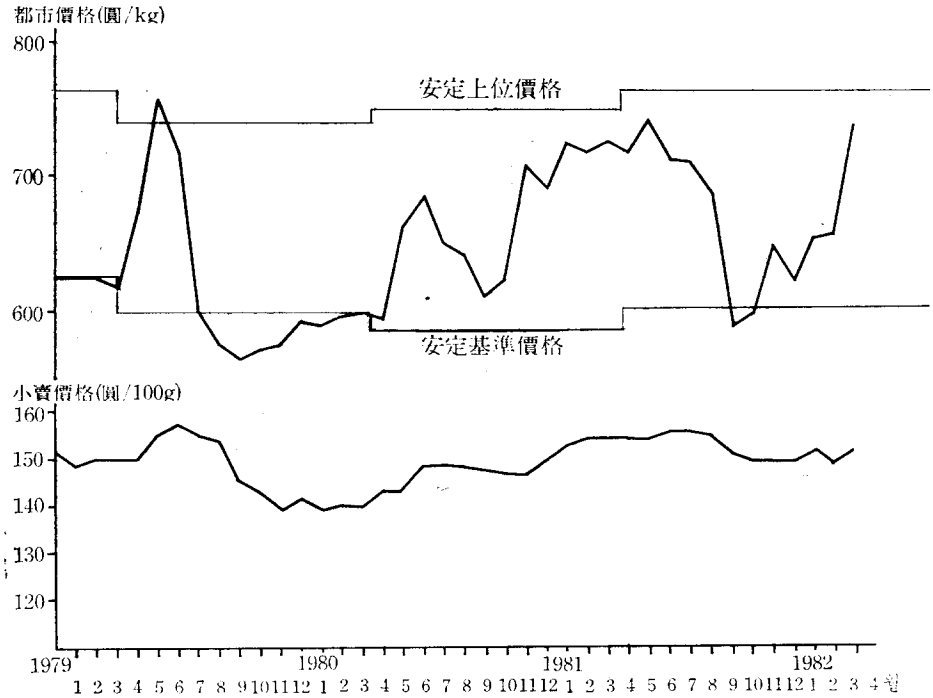
兩國間의 生豚價格 및 精肉價格의 隔差는 바로 流通費用의 隔差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豚肉의 流通費用도 日本이 臺灣보다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

豚肉의 價格은 産地價格이든 小賣價格이든 그것이 都賣價格의 變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日本과 臺灣 兩國의 돼지 都賣價格 推移를 보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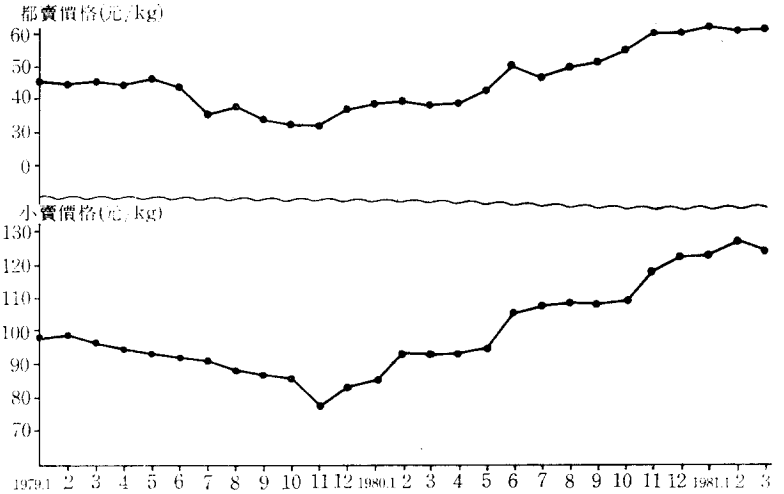
먼저 日本의 경우를 보면 都價價格은 枝肉價格으로 그 變動이 小賣價格보다 훨씬 심하다. 바꾸어 말하면 小賣價格은 都賣價格에 비해 그 變動이 硬直的이다. 都賣價格은 都賣市場에 豚肉을 출하하는 것이 순수한 競爭狀態에 있어서 그 出荷量을 조절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그 量에 따라 價格의 變動이 심하다. 그러나 小賣價格은 豚肉小賣商이 地域單位를 대상으로 할 때 어느

그림 3 豚肉의 都賣價格 및 小賣價格의 推移

(1) 日 本



(2) 臺 灣



정도 獨占性을 띠게 되어 小賣市場은 獨占的 競爭의 狀態에 놓이게 되므로 그 價格變動은 都賣市場에 비해 상대적으로 硬直的이라고 한다.[3]

日本은 豚肉의 都賣價格이 이 그림에서처럼 심하게 변동하여 시장가격이 不安定하므로 그 變動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움직이도록 制度的인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즉 그 변동의 범위를 下限線을 安定基準價格으로, 上限線은 安定上位價格으로 하는 豚肉價格安定帶를 설정하고 있다.[4] 이 制度는 豚肉의 都賣價格이 安定上位價格 이상으로 상승하여 지속될 때는 輸入하는 豚肉의 關稅를 낮추어 그 價格을 安定帶 속으로 떨어지게 하고 都賣價格이 하락하여 安定基準價格 이하에서 지속될 때는 수입하는 豚肉의 關稅를 높이고 豚肉을 수매하여 그 價格을 安定帶 안으로 상승시킨다. 이와 같이 日本에서는 豚肉價格의 變動을 豚肉의 輸入量으로 조절하고 있다.

그런데 臺灣에서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都賣價格과 小賣價格이 거의 같은 형태로 변동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돼지의 都賣市場出荷가 純粹競爭狀態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前述한 바와 같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出荷量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都賣價格의 變動이 비교적 약하다고 하겠다. 生豚의 國內出荷는 農會를 통하여 그 出荷量을 미리 조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輸出國의 生豚出荷도 제한하고 있다.[5] 즉 國內生豚價格이 폭락할 때는 돼지의 輸出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許可를 하고 國內價格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때는 輸入量을 조절하는데 이미 信用狀을 개설한 物量에 대해서는 그대로 輸出하도록 제한하지 않는다. 臺灣에서의 豚肉輸出은 그것이 단순히 돼지를 外國에 수출하여 外貨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國內 豚肉의 價格을 안정시키는 手段도 된다.

日本에서나 臺灣에서나 豚肉의 價格安定은 모두 供給量을 조절함으로써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供給量의 調節方法이 兩國間에 다르다. 日本은 輸入量의 調節로 供給量을 조절하는 간접적

[3] 高橋伊一郎, 「食肉經濟」, 日本評論社, 1972, p. 117.

[4] 安定價格의 算定은 다음과 같은 方式으로 결정한다.

$$\text{安定價格} = \left(\frac{\text{基準期間의 肉豚}}{\text{農家販賣價格}}\right) \times \frac{\text{價格決定年度의 肉豚生產費}}{\text{基準期間의 肉豚生產費}} \times \left(\frac{\text{수급조정}}{\text{계수}}\right) \times \left(\frac{\text{肉豚환산}}{\text{계수}}\right) \times \left(\frac{1\pm \text{肉豚都賣價格}}{\text{의 변동계수}}\right)$$

[5] 1979년 11월 이후 돼지生產의 과잉으로 이 制限은 철폐되었다.

인 方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臺灣은 飼育 및 出荷量의 조절로 그 供給量을 조절하는 직접적인 方法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兩國의 經濟運用의 차이이며, 日本은 이미 市場機能에 완전히 맡기는 市場經濟體制가 획립되어 있으나 臺灣에서는 아직도 政府의 직접적인 介入에 의한 管理經濟體制라는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輸出入 政策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傳統的으로 日本은 豚肉의 輸入國이며, 臺灣은 그 輸出國이다. 日本은 덴마크, 캐나다, 美國, 臺灣 등 여러 나라에서 豚肉을 수입하고 있으며, 臺灣은 日本, 홍콩 등에 수출하고 있으나, 輸出量의 거의 대부분은 日本으로 수출된다.[6]

최근 日本의 豚肉輸入量은 〈表 6〉과 같다. 日本의 豚肉, 總輸入量 중 臺灣으로부터 수입되는 量의 比率은 10~20%의 범위로서 그렇게 커다란 比重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日本側에서 보았을 때는 臺灣에서 수입되는 豚肉의 量이 그렇게 중요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臺灣側에서 보았을 때는 日本에 수출하는 豚肉의 量은 거의 대부분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日本의 豚肉輸入은 輸入割當(IQ)制度였으나 1971년부터 自動承認(AA)制度로 바뀌었으며, 豚肉輸入은 현재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豚肉輸入에 대한 關稅制度는 差額關稅制度로서 關稅率은 당시의 豚肉 需給狀態에 맞추어 조정한다. 豚肉의 國內生產量이 많을 때는 關稅率을 높여 輸入量을 줄이고, 生產量이 적을 때는 關稅率을 낮추어 輸入量을 늘린다. 豚肉의 輸入量은 대체로 總需給量의 15% 내외로 계획하고 이 輸入量으로 國內 豚肉價格을 조절하고 있다.

表 6 日本의 豚肉 輸入量

	總輸入量 (A)	臺灣으로부터 輸入量 (B)	B/A
1977	112,738M/T	19,205M/T	17.0%
1978	105,597	20,330	19.3
1979	133,040	16,194	12.2
1980	108,534	17,075	15.7

資料：日本 農林水產省, 「食品 關係資料」, 1982.

臺灣은 豚肉輸出이 外貨획득 뿐만 아니라 國內價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豚肉輸出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7] 豚肉輸出을 규제하고 있다. 즉 豚肉輸出政策은 國內豚肉價格의 안정을 원칙으로 하고, 內需에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輸出을 허가한다. 輸出業者는 매월 상순중에 前月分의 輸出用으로 도살한 生豚數를 政府에 보고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리고 輸出業者는 豚肉輸出用의 原料豚을 공급받는 것도 當局으로부터 原則的으로 할당받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日本과 臺灣 兩國의 豚肉 輸入出政策이 다른 것은, 兩國의 經濟發展段階의 差異에서 오는 것이라 하겠다. 즉 日本은 經濟體制가 完全開放體制로 특수한 品目을 제외하고는 輸入이 자유화되어 있다. 豚肉도 물론 輸入自由品目으로 특별한 制限을 가하지 않고 自動承認品目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臺灣에서는 아직도 經濟體制가 完全開放狀態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國際市場으로 완전히 開放하게 되면 국제적인 要因에 의하여 오히려 豚肉價格이 不安定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臺灣의 豚肉價格은 國際價格의 水準보다 낮은데 그 市場을 완전히 개방하게 되면 國內價格이 상승하게 되어 豚肉의 需給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6] 臺灣의 豚肉輸出量 중 日本에 수출하는 量의 比率은 1975년 100%, 76년 99%, 77년 95%, 그리고 78년 97%였다.

[7] 冷凍冷藏豚肉輸出管理法(1976년 5월 19일 公布)

V. 맺는 말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日本과 臺灣의 養豚經濟를 비교하였다.

豚肉의 消費가 증가하고 돼지飼育이 大規模化되고 있는 養豚의 發展過程은 兩國이 모두 비슷하였다. 이것은 經濟發展에 따르는 養豚經濟의 適應過程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兩國의 經濟狀態가 다르기 때문에 또한 부분적으로 差異點도 있었다. 이러한 差異點은 대부분 經濟發展의 段階에 의한 差異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豚肉에 대한 兩國 國民의 選好度가 다른 점은 經濟發展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養豚經濟를 논함에 있어서 非經濟的 要因의 重要性이 새삼스럽게 인식되었다.